

2021년 27회 1차 시험 『상업등기법』 총평

담당교수 : 김경중 법무사 (주&야)

■ 제27회 시험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상업등기 12문제, 비송사건절차 2문제, 상업등기와 과태료재판 교차지문 1문제로 비송사건 절차법 분야의 출제 비중이 예년에 비해 줄어 들었다. 특히 주식회사 등기 부분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여 최근 2년 보다 출제 비중이 늘어났다.

수험생 입장에서 준비하지 못했던 낯선 지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문제 선이고 기출 문제로 출현했던 평이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즉, 예년에 비하여 지문 구성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무난하였다고 판단된다.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았고 확실히 답이 되는 지문과 아닌 지문이 구별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특별히 많이 들여야 하는 문제들도 예년에 비하여 적었다고 판단된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를 가늠해 보면 상급 2문제, 중급 3문제 정도로서 나머지 10문제 가량이 평이한 문제로 구성되었다. 즉,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는 조금 쉬웠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난이도가 평이한 문제들이 상업등기 총론과 주식회사 등기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10문제 전후를 맞춘 수험생들이 예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3문제 이상의 고득점자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1문제 정도의 커트라인 상승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학습방향

25~26회, 2년에 걸쳐 비송사건절차법의 출제 비중이 늘어났던 것이 이번 27회 시험에서 다시 상업등기 특히 주식회사 중심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론이나 실무의 비중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라 사료된다.

상업등기법에 11~12문제의 비중을 놓고 비송사건(법인등기/과태료 사건 포함)에 3~4문제의 비중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 공부의 비중으로 보면 주식회사 60%, 상업등기 총론 20%, 비송사건재판 총론 10%, 나머지 10% 정도의 순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상법의 해당 절차와 등기 첨부서류를 연결시켜 정리하고, 그 외에 상업등기법의 총론의 지문들을 정리한다면 상법과 상업등기법 양 쪽 모두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업 등기	총론		2	4	3	3.5	3.5	16	
	상호				1			1	
	무능력자				1			1	
	지배인					1		1	
	합자조합							0	
	합명회사							0	
	합자회사							0	
	주식회사		7	7	3	5	7.5	29.5	
	유한회사				1		0.5	1.5	
	외국회사			1		1		2	
	유한책임회사			1				1	
	상업등기 종합문제, 기타(채무자회생법등)		2				1	3	
비송 사건	총칙		2		2	1		5	
	민사 비송	법인에 관한 사건			1				1
		신탁에 관한 사건					1		1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1					1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0
		부부재산의 약정					1		1
		민사비송 종합문제			1				1
	상사 비송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1	3		5
		사채에 관한 사건				1			1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			1
		상사비송 종합문제							0
	법인등기				1	0.5		1.5	
	과태료 사건						0.5	0.5	
총계		15	15	15	15	15	75		